

「지구규모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지구환경문제 생활원점에서 해결한다」

박 영 숙

(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지구 규모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이것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운동의 표어이다. 오늘의 지구환경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그 해결은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그리고 개인은 개인대로 환경친화적인 정책, 생산 그리고 생활을 각기 선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비롯된다는 것이다.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이 핵문제해결과 다른 점은 국가정상들의 원탁회의에서 되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생활의 원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지구환경보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지구환경문제의 일차적인 원인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소비미덕의 사회풍조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나만이면 된다는 이기심에 근거하고 있다.

오늘의 세계에는 20%의 세계인구가 80%의 세계자원을 낭비하는 선진국과 이들의 생활수준을 따라 잡기에 급급한 개도국이 있는가하면 생존에 허덕이는 후진국들이 있다.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지구환경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진국의 수준으로 살려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수백개 더 있어야 할 것이다. 생활수준향상이 바로 지구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우 문제 등을 일으키는 원흉인것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편리함과 풍요함을 선호해 “전기톱으로 버터를 썰기까지 한다”는 미국의 생활수준을 추구한 나머지 우리는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문제, 공기문제, 식품문제, 기형아 탄생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들의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개혁없이 해결되지 않는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가정에서는 주부들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분리수거, 재활용, 음식찌꺼기퇴비화운동 등에 열심히 가담하고 있다. 우유팩을 모으거나 폐유로 비누를 만들어 쓰는 등의 생활지혜도 분명히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함정이 있다. 재활용이 되고 폐기물을 잘 처리하고 생산과정에서 오염을 줄이는 기술을 활용한다고 해서 얼마든지 만들어서 소모하고 폐기해도 되는 것인가?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의 제1수칙은 덜 쓰는 것이다. 적게 쓰면 적게 만들고 적게 버리게 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후손들도 쓸 수 있는 자원과 지구의 자정능력을 보전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4R 또는 6R 운동이 한창이다. 그것은 ①자원소

비감축(Reduce) ②재사용(Reuse) ③수리해서 사용(Repair) ④재생(Recover) ⑤재활용(Recycling) 등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의 환경친화적인 최소한의 과제는 ①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각 지자체들은 지역주민, 기업 등의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녹색지역 만들기에 착수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환경선언문」과 「지역의제21」 작성으로 시작된다. 외국의 도시에서는 이미 이런 작업을 끝마친 상태이다.

②기업은 생산품의 생산, 활용 그리고 폐기 등 전과정의 환경친화성을 배려하며 소비자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녹색구매지침」이 바로 이런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다.

③지역주민은 환경친화적인 생활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운동을 전개해야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에는 불편과 비용부담이 따르게 마련이며 환경보전의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자숙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윤리로서 정착시켜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 「세계화」를 비롯해 「환경의 세계화」를 주창하고 있다.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그 내용이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능가하고 환경기술 수출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21세기의 세계질서의 지표는 「작은것이 아름답다」라는 새생명의 패러다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바퀴